

#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정보 수용과 전통 미디어 뉴스 읽기의 비교

카카오톡의 대화와 신문 비교를 중심으로\*

**이미나**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조교수\*\*

**양승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서희정** 교육방송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정보 수용을 기존의 전통적인 신문기사 형식의 뉴스 읽기와 비교·분석했다. 전통적인 신문기사 읽기 조건과 비교할 때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전달은 대화저널리즘 양식으로 이뤄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양식의 차이가 뉴스 정보의 기억과 구성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유사실험을 통해 관찰했다. 실험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가상의 기사를 전통적인 신문기사 형식과 소셜미디어의 대화체 이야기 정보 방식으로 제작해 신문기사 조건과 소셜미디어 조건에 활용했다. 뉴스의 이해 정도를 정보 기억(전체 내용 기억, 주요 내용 기억, 내용을 틀리게 기억한 정도, 부가적인 정보의 기억, 사실 정보 획득)과 구성(인과관계 기억)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했다. 분석결과, 신문기사 조건은 소셜미디어 조건보다 정보 기억에서 더 뛰어났다. 전체 내용의 기억 정도, 주요 내용을 기억한 정도, 부가적인 정보를 기억한 정도, 사실 정보 획득 등에서 신문기사 조건이 우세했으며, 내용을 틀리게 기억한 정도는 소셜미디어 조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 기억의 경우, 일반적 인과관계를 기억하는 정도는 소셜미디어 조건이 더 뛰어났지만 해당 기사에 특정한 인과관계를 기억하는 정도는 신문기사 조건이 소셜미디어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적인 신문기사 형식이 뉴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KEYWORDS** 대화저널리즘, 소셜미디어, 기사 이해, 기사 회상, 인과 관계

\* 이 연구의 일부 내용은 2014년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minalee@sm.ac.kr

\*\*\* scyang@sookmyung.ac.kr, 교신저자

\*\*\*\* shjigibe@hanmail.net

## 1. 문제제기

스마트 미디어의 빠른 확산 속에 소셜미디어가 뉴스의 주요 정보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2015년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N = 5,062$ )의 18.9%를 차지했다. 뉴스 읽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소셜미디어는 카카오톡(50.5%)이었으며 페이스북(27.0%), 카카오토리(19.6%), 네이버블로그(10.8%), 밴드(9.8%)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48.9%)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구글 플러스, 링크드인 등을 통해 뉴스를 읽고 있다고 한다(Pew Research Center, 2013).

소셜미디어가 뉴스채널로 이용되면서 뉴스 이용의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포스팅된 뉴스를 보게 되며 뉴스 내용뿐 아니라 뉴스에 대한 다른 이용자들의 코멘트, '좋아요'가 표시된 정도 등을 함께 보게 된다. 개인 이용자들은 포스팅된 뉴스 중에서 보고 싶은 뉴스만을 선택적으로 읽으며 주관적인 내용을 직접 뉴스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뉴스를 읽은 이후에도 이용자들은 뉴스를 다른 이용자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거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가 전파되도록 기여한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뉴스가 유입되며 다양한 뉴스 콘텐츠가 유통되고 주요한 이슈는 사회적으로 공유·확산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 정보 획득의 새로운 방식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싱어(Singer, 2014)는 게이트키퍼의 2단계 과정으로 소셜미디어의 뉴스 이용을 정의한다.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 독자나 시청자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기사를 읽는 데에 머물렀다면 개별 뉴스를 네트워크에서 전파함으로써 이차적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기존 언론사들을 팔로우하거나 친구맺기를 맺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존 미디어와 관계를 구축한다(Singer, 2014). 이용자들은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며 특정 분야의 뉴스는 더 많이 공유하고(예, 복지, 과학기술 분야), 다른 분야(정치, 사건/사고, 재난, 범죄 등)는 덜 공유하는 경향도 보인다. 뉴스 격차(News gap)라는 새로운 현상이 전개될 것(Bright, 2016)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카펠라, 김, 그리고 알바라신(Cappella, Kim, & Albarracín, 2015)은 소셜미디어의 뉴스 이용은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형식의 변화를 동반하며 분석을 위해서는 정보의 선택과 전달과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과 전달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심리적 동기에 주목해야 하며 소셜미디어

의 뉴스 이용에 관한 더 분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의 뉴스 이용으로 인한 새로운 뉴스 정보 수용 방식에 주목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이용과 관련해 여러 관점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환경이 뉴스 정보 습득에 어떤 조건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뉴스 정보 습득의 인지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소셜미디어의 뉴스 이용이 가지는 함의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뉴스 정보 유통 상황을 대화방으로 만들어 실험 조건으로 사용했다. 실험 조건에서는 실제 대학생들이 대화방에서 뉴스 정보를 전달 하도록 하고 이후 연구참가자들이 뉴스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분석했다. 소셜 미디어의 뉴스 읽기를 비교하기 위해 다른 조건에서는 전문 기자가 작성한 신문 기사를 읽게 했다.

## 2. 뉴스 정보 습득의 장으로서의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는 개방과 공유, 소통을 위한 개인 간 사적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사적 네트워크에서 뉴스를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Eveland, Morey, & Hutchens, 2011). 뉴스 유통과 소비의 이러한 변화를 저널리즘 연구자들은 상시환기저널리즘(ambient journalism)(Hermida, 2010a, 2010b) 혹은 대화저널리즘으로 지칭하고 있다(최민재 · 양승찬, 2009).

상시환기저널리즘은 소셜미디어가 뉴스 플랫폼으로 작용하면서 광범위한 전파, 상시적 운용, 즉각적 전달과 비동시적 반응 등의 소셜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속성이 저널리즘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Hermida, 2010a; 2010b).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에 비해 소셜미디어는 광범위하고 비동시적이며 언제나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뉴스 채널로 활용되면서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형태의 저널리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관계에 기반을 둔 소셜네트워크의 연결 범위는 전통 미디어에 비해 더 광범위하며 전통미디어의 편성시간에 기초한 동시적 뉴스 전달 방식은 이용자의 편의에 따른 비동시적인 접근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상시환기저널리즘의 측면에서 볼 때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빠르고 즉각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에 대해 즉시 정보를 추가하고 수정한다. 이용자들은 그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게시하고 듣는 이들은 그것에 대해 반응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뉴스는 생산되고 전파된다.

대화저널리즘 역시 이와 같은 뉴스 담론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대화저널리즘은 소셜미디어에 기반한 저널리즘의 특성을 다양한 개인의 대화와 협력 방식에 있다고 주장한

다.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참여적이고 집합적인 뉴스의 생산과 소비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소셜미디어 기반의 뉴스는 이용자의 대화 참여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해내게 되며, 상황과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방식이다(최민재·양승찬, 2009).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폭 넓게, 시간적 규칙성과는 관계없이 무작위로 출현하는 사건을 접하게 된다(Hermida, 2010a; 최민재·양승찬·이강형, 2013). 소셜미디어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뉴스로 이해하는 것은 개인 이용자에게 의해서인데 이용자들은 대화와 참여를 통해 무작위로 주어지는 정보의 조각을 뉴스로 이해하게 된다. 주류 뉴스 미디어와 비교하면 주류 뉴스 미디어의 경우는 수용자에게 강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정리되고 배열된 글로 뉴스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셜미디어에서의 이용자들은 비동시적으로 전달되는 조각 정보를 수집하고 배열하면서 뉴스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뉴스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소셜미디어는 기존의 전통 미디어와 차별화된다. 대표적으로 신문은 역피라미드 구조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뉴스를 작성하지만 소셜미디어의 뉴스는 이러한 표준화된 방식을 탈피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 정보는 비선형적으로 전개되면서 역피라미드에서 보여주는 선형적이고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이야기체의 내러티브로 전개된다(최민재 외, 2013). 특히 이용자들은 수시로 끊임없이 네트워크에서 내용의 조각을 생산해내고 공유, 토론하고 표현하면서 뉴스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시키고 뉴스의 확산에 기여한다. 이용자의 참여에 기반해 전파되는 뉴스는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일관적인 형태로 전달되기 보다는 개별 이용자들의 경험과 생각, 의견, 느낌을 표현하는 부분들의 집합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에서 뉴스 정보를 얻게 되는 읽기의 과정에 주목했다.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이용자들은 정리된 형식으로 뉴스를 이해하기보다는 무작위적으로 제공되는 조각난 정보를 통해 뉴스를 이해하게 된다. 이때 이용자들의 뉴스 읽기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했다. 특히 전통적 기사를 통해 뉴스를 이해하는 것과 내러티브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야기의 조각 속에서 뉴스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탐색적인 연구를 통해 진단하려 했다.

### 3. 뉴스 정보 수용과 이해

#### 1) 전통적 뉴스기사의 정보 수용 양식

전통적 뉴스 읽기의 상황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사의 글쓰기 장르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읽기의 양식으로 정착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독자들은 신문 기사의 글쓰기 형식에 익숙해 있으며 기사 작성의 문법을 알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Graber, 1988). 가령, 독자들은 기사의 헤드라인과 첫 문장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첫 문장을 리드 삼아 본문의 내용을 심화시키거나 혹은 더 이상 읽지 않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역피라미드형 스타일이 이에 해당된다.

역피라미드 스타일은 뉴스 편집과정을 용이하게 해주며 뉴스 조직이 편집을 통해 뉴스의 제작과 전달을 주도하는 방식이다(김경모, 2012). 역피라미드 방식은 핵심 내용을 제일 앞에 배치하는 기사 작성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의 전송기술 때문에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역피라미드 방식은 독자들의 선택적 지각을 돕고 이를 통해 기사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저널리즘 내부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Pöttker, 2003).

역피라미드 형식과 대비되는 스타일은 내러티브형이다. 내러티브형은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 또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는 인과관계에 따라 기사를 서술하는 형식(곽민영, 2011, p.17)”으로 정의된다. 내러티브형 기사는 스토리텔링, 문학적, 논픽션 글쓰기 등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독자 친화적 저널리즘, 독자를 상황에 끌어들이는 글쓰기로 평가받고 있다(Shim, 2014).

역피라미드형과 내러티브형은 기사 내용의 기억과 감정적 반응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내러티브형이 역피라미드형보다 더 많이 기억되고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기사에서 내러티브형 기사를 읽을 때 흥미도가 더 높았다(곽민영, 2011). 온라인뉴스에서도 내러티브형을 읽은 이후 더 정확하게 기억했으며(Wise, Bolls, Myers, & Sternadori, 2009), 사건 전개에 따라 구성된 내러티브형은 독자에게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반면 역피라미드형은 주된 감정적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nobloch, Patzig, Mende, & Hastall, 2004).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들은 기사 내용 구성방식이 내용의 기억과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피라미드형과 내러티브형에 대한 기자들과 독자의 평가, 그리고 기사 내용에 관한 기억 정도와 유도되는 감정적 반응 등이 글쓰기 장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아래에서 점검했다.

## 2) 뉴스 정보 획득과 이해에 관한 이론

소셜미디어의 뉴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소셜미디어의 뉴스 제공 환경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관찰하는 연구들이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의 특징은 뉴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인데 가령, 소셜미디어에서는 다른 이용자의 평가가 뉴스 선택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노블로흐-웨스터윅, 샤마, 헨슨, 그리고 엘터(Knobloch-Westerwick, Sharma, Hansen, & Alter, 2005)는 온라인 뉴스의 대중성 지표가 뉴스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관찰했다. 추천수가 높은 경우 해당 기사를 읽는 시간이 더 길었으며, 읽은 이용자수가 낮거나 높다고 표시된 기사는 더 자주 선택됐다. 읽은 이용자수가 높다고 표시된 기사가 더 자주 선택된 것은 이용자들이 다수가 관심을 가진 이슈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으로 이해되며, 이용자수가 낮은 기사의 경우는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됐다.

이용자의 뉴스 선택 결과에 따른 효과를 지적한 일련의 연구들도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사회적인 공적 이슈를 접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이견에 노출되는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됐으며(Baumgartner & Morris, 2010), 소셜미디어의 정보추구 동기와 정치적 활동이 정적 연관을 보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적 이슈를 접하려는 동기가 높은 이용자는 정치적 활동이 좀 더 활발한 것으로 관찰됐다(Park, Kee, & Valenzuela, 2009).

소셜미디어로 뉴스를 접하거나 공유하는 이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글린, 휴즈, 그리고 호프만(Glynn, Huges, & Hoffman, 2012)은 젊은 층의 이용자들이 노년층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더 많이 접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한다고 분석했다. 성격요인으로 보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이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변인은 주요 사회경제적 변인과 함께 고려했을 때 그 효과가 사려져 성격 요인이나 삶의 만족도는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뉴스 공유의 동기를 밝히는 연구들에서는 정보추구의 동기와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고자하는 동기가 높을수록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공유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Ma, 2012). 자신을 의견지도자로서 인식하는 정도, 온라인 네트워크에서의 관계의 강도, 온라인 뉴스에 대한 선호도 등도 뉴스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됐다(Ma, Lee, & Goh, 2014). 또한 뉴스를 공유하는 정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뉴스를 포스트하는 정도, 언론사나 기자들을 팔로우하는지의 여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전달받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됐다(Weeks

& Holbert, 2013).

이상의 연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접근과 읽기의 효과를 부각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뉴스 이해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읽기를 개인 간 사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상시환기저널리즘 혹은 대화저널리즘의 양상으로 이해했고 이에 의한 뉴스 읽기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소비는 “구전 형식의 소식나누기”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장소에서 청자이자 화자인 발화자가 뉴스와 정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박선희, 2012, 52쪽)이며 정보의 조각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뉴스 소비자가 이를 조직화해서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읽기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은 뉴스 정보 처리과정을 분석하는 이론들에서 찾아질 수 있다.

첫 번째 접근법은 정보처리과정에 주목해 뉴스 정보의 유입과 처리, 인출과 기억에 대해 분석하는 이론들이다. 특히 정보처리에 필요한 인지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Lang, 2000), 뉴스 정보 획득 과정과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 역피라미드형과 내러티브형 방송 기사를 읽었을 때, 뉴스 내용의 인지 정도가 내러티브형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이 관찰됐다(Wise et al., 2009). 제한적 인지 자원이론의 관점에서 해당 결과는 역피라미드 유형이 좀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고 따라서 인출에 활용되는 자원이 내러티브 유형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또한 역피라미드형 기사를 읽을 때 이차과제(secondary task)의 반응속도가 내러티브형 기사를 읽을 때보다 느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ternadori, 2008). 연구에 사용된 이차과제는 기사를 읽으면서 소리가 들리면 즉시 앞에 놓인 컴퓨터 자판의 엔터키를 치는 것이었다. 역피라미드형 조건에서 소리에 반응하는 속도가 더 느린 것은 역피라미드형 기사의 정보처리과정이 내러티브형 기사의 정보처리과정보다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추가로 부여된 이차과제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인지적 자원이 역피라미드형 기사조건에서 더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보처리과정에 집중하는 접근은 뉴스 이해의 과정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뉴스를 읽을 때 동반되는 감정적 반응과 평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뉴스의 서사적 구조를 강조하는 두 번째 이론적 접근법들이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 해당 연구들은 뉴스의 서사적 속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독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는 앞서의 정보처리과정에 토대를 둔 이론들과 달리 담론 형식으로 이해되는데 사건의 전개와 발달, 절정과 결말 등, 사건의 진행 유형에 따라 독자의 반응이 차별화된다고 파악한다.

예를 들어, 선형스타일로 작성된 기사는 사건의 시작, 전개, 발달, 절정, 결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구조인데, 이때 독자들은 기사를 읽으면서 호기심 반응을 보인다. 이에 비해 역피라미드 기사는 사건의 발달이 제시된 이후 결론이 이어서 제시되고 이후 전개, 발달, 절정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때 독자들은 특정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됐다(Knobloch, Patzig, Mende, & Hastall, 2004). 독자는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에서 묘사되는 사건구조를 심적으로 구성하게 되면서 사건 진행에 몰입하게 된다는 주장(Yaros, 2006)도 뉴스의 서사적 속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두 번째 이론들은 독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뉴스 이해의 인지적 과정을 분석하는 체계적 이론으로 활용되기에는 소홀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이해에 관한 이론을 배경으로 뉴스 정보 수용의 인지적 과정과 효과를 분석했다. 텍스트 이해의 분석틀은 뉴스 이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자주 활용돼 왔다(i. e., Collins, 1983; Gunter, 1987; Robinson & Davis, 1986). 해당 이론들에 의하면(예, van Dijk, 1988; Kintsch, 1998; Zwaan, Langston, & Graesser, 1995; Zwaan, & Magliano, & Graesser, 1995),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은 텍스트 정보가 심적으로 재현되어 구성되는 과정으로 독자들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 정보를 토대로 해당 텍스트가 전달하는 내러티브를 이해하게 된다. 이때,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심적 모델(mental model) 혹은 상황 모델(situation model)을 형성하게 된다(i. e., Lee, Roskos-Ewoldsen, & Roskos-Ewoldsen, 2008; Zwaan, Magliano, & Graesser, 1995). 심적 모델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인물이나 대상에 관한 심적 표상이며 상황모델은 심적 모델 중에서도 특정 상황이나 에피소드의 표상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곧, 텍스트 이해의 과정은 심적 모델의 구성 과정이며 텍스트 이해의 정도와 수준은 심적 표상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뉴스의 경우, 기사를 읽으면서 독자들은 기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토대로 특정 상황을 표상하는 심적 모델 혹은 상황 모델을 구성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기사가 전달하는 특정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텍스트 이해에 관한 이론들은 뉴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뉴스를 더 잘 이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텍스트 이론은 뉴스 이해의 인지적 과정을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이해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뉴스 이해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 3) 뉴스 이해의 인지적 과정

뉴스 이해의 과정을 심적 모델 혹은 상황 모델의 구성이라는 했을 때, 심적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특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뉴스 이해의 속성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심적 모델은 “시간, 동기(화), 주인공, 장소를 사용하여, 실제 상황이나 상상의 상황에서 기술되거나 경험한 상황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것 (Bryant, Thompson, & Finklea, 2013, p.141)”이다. 독자들은 텍스트의 정보를 토대로 심적 모델을 구축하는데 이때 텍스트는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써, 의미를 전달하는 조직체로 정의된다. 텍스트의 기본 단위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유입되면서 독자들은 이를 토대로 심적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다.

심적 모델을 토대로 한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면 텍스트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문장과 유사하지만 독립된 하나의 행동이나 행위에 관한 진술문(Zwaan, Langston, & Graesser, 1995)을 기본 단위로 분석했다. 방송뉴스의 경우, 분석의 기본 단위는 장면에서 묘사되는 하나의 행동이나 상황, 이벤트다(Yaros, 2006). 영화텍스트의 경우, 기본 단위는 영화의 솟에서 묘사되는 단일 행동, 상황 등이다(Lee, Roskos, & Ewoldsen, 2013; Magliano, Dijkstra, & Zwaan, 1996).

텍스트의 기본 정보들은 텍스트의 배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면서 심적 모델을 구성하게 되는데 가령, 첫 번째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으로 혹은 첫 번째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다. 이때 독자들은 정보를 처리하면서 심적 모델을 구성하는데 텍스트 정보를 토대로 상황이나 사건을 심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기사 읽기의 과정은 신문기사가 전달하는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해당 기사가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독자는 기사에 포함된 정보(예, 문장)를 순차적으로 독해하면서 이를 통해 일관된 의미를 획득한다. 문장을 단위로 한다면,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고 다음 문장이 앞서 문장과 통합되고 이후의 문장은 앞서 구성된 모델에 통합되면서 전체 글은 심적 모델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일관적인 의미가 획득된다. 곧 뉴스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내용이 일관적인 의미로 재현되는 인지적 과정을 뉴스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심적 모델 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이론이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뉴스 이해를 분석했다. 먼저 기본 단위는 뉴스에 포함된 진술문으로 설정했다. 뉴스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진술문의 기억, 핵심진술문의 기억, 틀리게 기억한 정도, 추가 정보를 기억한 정도 등 4가지 변인을 분석했다.

전체진술문의 기억과 핵심진술문의 기억은 기존 연구에서도 활용되는 지표이다. 전

체진술문의 기억은 텍스트의 진술문 중에서 기억하는 진술문을 측정하는 것으로 텍스트의 전체진술문과 유사하게 기억한다면 이해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핵심진술문은 해당 뉴스의 주요 내용으로, 뉴스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진술문이다. 핵심진술문을 기억하는 것은 뉴스를 읽고 나서 뉴스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기억하는 것으로, 제시된 핵심 진술문을 기억한다면 뉴스에 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Robinson & Davis, 1986). 핵심진술문의 기억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뉴스의 주요 내용을 어느 정도 잘 기억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1-1>에서는 전체진술문의 기억 정도를 분석했으며 <연구문제 1-2>에서는 핵심진술문에 대해 분석했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의 정확성과 정교함을 분석하기 위해 틀리게 기억한 진술문의 정도와 추가 정보의 기억 정도를 분석했다. 기억 내용의 정확성은 뉴스에 포함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다르게 기억한다면 뉴스 이해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연구문제 1-3>). 또한 추가 정보를 기억한 정도를 관찰했다(<연구문제 1-4>). 추가 정보는 진술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뉴스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 정보를 더 많이 기억했다는 것은 뉴스 내용을 더 풍부하게 기억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뉴스에 관한 기억을 분석하기 위해 사실 정보 획득정도를 관찰했다(<연구문제 1-5>). 사실 정보 획득은 기억을 분석할 때 자주 활용되는 지표이다. 기사에 실린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수용 조건이 뉴스 이해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기사 읽기 조건과 비교했다. 텍스트 이해의 이론들에 따라 <연구문제 1> 과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됐다.

연구문제 1.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이해는 전통적인 기사 읽기 조건에서의 뉴스 이해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1-1.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이해는 전체진술문 기억 정도에서 전통적인 기사 읽기 조건에서의 뉴스 이해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1-2. 소셜 미디어에서의 뉴스 이해는 핵심진술문 기억 정도에서 전통적인 기사 읽기 조건에서의 뉴스 이해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1-3. 소셜 미디어에서의 뉴스 이해는 틀리게 기억한 진술문의 양에서 전통적인 기사 읽기 조건에서의 뉴스 이해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1-4. 소셜 미디어에서의 뉴스 이해는 추가적인 정보를 기억한 진술문의 양에서 전통

## 적인 기사 읽기 조건에서의 뉴스 이해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1-5. 소셜 미디어에서의 뉴스 이해는 사실 정보 획득에서 전통적인 기사 읽기 조건에서의 뉴스 이해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2〉는 뉴스의 조직적인 이해 정도를 분석했다. 텍스트 이해에 관한 이론들에서 이해란 뉴스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일관성 있게 통합되었는지와 관련된다. 그런데 정보 통합은 무작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준에 따라 관련 정보들이 묶이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기준은 시간, 공간, 인과관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심적 기준에 따라 정보는 배열되고 새롭게 업데이트된다(Zwaan & Radvansky, 1998; Zwaan, Radvansky, Hilliard, & Curiel, 2009). 시간을 예로 들면, 시간대 별로 혹은 동일 시간대에 발생하는 정보들이 시간대라는 꼬리표로 구분되어 시간 기준에 따라 통합되는 것이다.

랭(Lang, 1989)은 시간 기준이 뉴스 이해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혔는데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기사가 그렇지 않은 기사보다 더 잘 기억된다는 점을 관찰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순서대로 작성된 기사를 읽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기사를 읽을 때보다 기사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이다. 곧 정보들이 적절한 기준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부분들이 집합적 수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해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시간 이외의 중요한 기준은 인물, 공간, 인과관계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에 집중해 이해의 정도를 분석했다. 인과관계 기준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글의 정보가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특정 진술문A가 다른 진술문B의 원인이고 B는 A의 결과라면 진술문A와 B는 인과관계 기준에서 통합된다(van den Broek & Gustafson, 1990; Trabasso & Sperry, 1985). 텍스트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사건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뉴스 텍스트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인과관계를 이해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진술문의 동시 출현을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van den Broek, Ridsen, Fletcher, & Thurlow, 1996; Lee, Roskos-Ewoldsen, & Roskos-Ewoldsen, 2008). 인과관계기준에서 통합된 정보들은 내용을 기억할 때 동시에 언급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분석방법이다. 가령, 원인 진술문A와 결과 진술문B는 텍스트에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인과관계 기준에서 통합되었다면 이후 내용을 기억할 때 동시에 언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진술문A와 진술문B가 동시에 언급된다면 인과관계 기준에서 통합되어 이해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인과관계 이해 정도를 분석했다. 특히 세부 연구문제에서는 인과관계를 일반적 인과관계와 사건에 특정한 인과관계로 구분해서 살펴봤다. 일

반적 인과관계란 이미 알고 있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뉴스에서 언급되기는 했지만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진술문 A가 ‘몸싸움으로 여성 한 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이고 진술문 B가 ‘머리를 다친 여성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라고 하면 A와 B는 뉴스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머리를 크게 다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에서 ‘해고노동자 여성 한 명이 집회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와 ‘머리를 다친 여성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는 머리를 크게 다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일반적 인과관계 이외에도 집회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이에 따라 사망했다는 해당 뉴스에 특정한 인과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인과관계의 이해 이외에도 사건에 특정한 인과관계를 이해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뉴스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다 더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하면 <연구문제 2>와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이해는 인과관계 기억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기사 읽기 조건에서의 뉴스 이해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2-1.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이해는 일반적 인과관계를 기억하는 정도에서 전통적인 기사 읽기 조건에서의 뉴스 이해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2-2. 소셜 미디어에서의 뉴스 이해는 사건에 특정한 인과관계를 기억하는 정도에서 전통적인 기사 읽기 조건에서의 뉴스 이해와 어떻게 다른가?

## 4.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개요

가상의 뉴스를 만들고 해당 뉴스를 신문기사 조건과 소셜미디어 조건의 실험처치물로 만들었다. 신문기사 조건은 전통적인 뉴스 읽기 조건으로 역피라미드 스타일의 기사를 읽는 조건으로 구성됐다. 소셜미디어 조건은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읽는 조건으로 처치됐다. 역피라미드 스타일의 기사는 선형적이고 조직화된 정보 전달 방식의 속성을 반영하고자 채택됐다. 소셜미디어 조건은 대화저널리즘의 속성을 반영하고자 이용자들이 비선형적이고 단편적인 뉴스 정보를 통해 뉴스를 이해하도록 했다. 카카오톡의 단체방에서 이용자들이 대화체 형식으로 뉴스 정보를 전달하도록 구성했으며 실험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읽

도록 했다(아래 '3) 실험자극' 참고).

가상의 뉴스는 외국인 노동자의 시위에 관한 것으로 총 21개의 진술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전체 진술문은 <부록> 참고). 21개의 진술문 중 5개는 핵심 진술문이었다. 해당 뉴스를 신문 조건의 기사 형식과 소셜미디어 조건의 뉴스 읽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제작했다. 뉴스를 접한 이후, 실험참가자들은 읽은 내용에 대해 설문지에 기억나는 대로 적었으며 실험참가자들의 응답내용을 연구자들이 내용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주요 종속 변인을 추출했다: <연구문제 1>, '전체진술문 기억' 정도, '핵심진술문 기억' 정도, '틀리게 기억한 진술문의 양', '추가 정보를 기억한 진술문의 양', '사실 정보 획득'; <연구문제 2>, '일반적 인과관계' 기억, '사건 특정 인과관계'. 사실 정보 획득은 실험 자극을 토대로 만든 10개의 퀴즈 점수를 변인값으로 사용했다. 구체적인 변인 추출과정과 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2) 변인의 측정과 측정 방법

### (1) 진술문의 구성

연구자들은 실험 자극에 사용된 가상의 뉴스를 총 21개의 진술문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총 21개의 진술문 중 핵심 진술문은 5개였다(<부록> 참고.). 핵심 진술문은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문'으로 정의됐으며 핵심 진술문을 추출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함께 결정했다.

### (2) 전체 진술문 기억과 핵심 진술문 기억

전체진술문의 기억은 실험참가자들이 실험 자극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실험참가자들에게 실험 자극에 대해 기억나는 내용 모두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료 수집의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 조금 전 읽은 글에 대해 이 글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대한 자세하게 많은 내용으로 기억나는 대로 글의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지시문 아래에는 실험참가자들이 기억나는 내용을 하나의 진술문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가로줄로 칸이 구분된 응답지가 주어졌다. 해당 칸에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추가 설명도 제시됐는데 다음과 같다. '아래 한 줄에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써 주세요', '완전한 문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로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영수가 밥을 먹었다/영등포에 불이 났다/영희는 약속 시간에 늦어서 택시를 탔다'.

핵심진술문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참가자들에게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서술하도록 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조금 전 읽은 글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1개의 문장으로 작성해 아래에 기입해주시오.”

수집된 실험참가자들의 응답을 연구자들이 1차로 점검했으며 이후 세 명의 코더가 응답내용을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1차 점검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진술문을 한 줄에 같이 쓴 경우를 분리하여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이 진술문 단위로 맞춰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전체 샘플 중에서 약 10%를 선택하여 사전 코딩을 실시했으며 사전 코딩에서 코더들은 응답자의 개별 진술문을 뉴스의 21개 진술문과 비교하여 진술문을 기억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외에 응답자별로 틀리게 기억한 진술문의 개수와 추가 정보를 기억한 진술문의 개수를 구했다. 코더간 신뢰도는 크리펜도르프 알파를 이용했으며, 코더간 신뢰도가 만족할 수준을 보여 이후 세 명의 코더는 각각 3분의 1 분량의 응답 내용을 분석했다.<sup>1)</sup>

### (3) 내용을 틀리게 기억한 정도

21개 진술문 각각에 대해 해당 진술문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용을 올바르게 서술하지 않고 다르게 서술한 경우는 틀리게 기억한 진술문으로 표시했으며 1점을 부여했다. 총 21개 진술문에 관해 틀리게 기억한 여부를 합해서 내용을 틀리게 기억한 정도의 값으로 사용했다.

### (4) 추가 정보를 기억한 정도

추가 관련 정보를 기억한 경우는 진술문을 언급하면서 뉴스에 제시된 내용을 추가로 언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진술문 외에 실험 자극에 포함된 세부 내용을 언급한 경우가 해당되며, 코더들은 추가로 내용을 기억한 진술문의 개수를 코딩했으며 추가 정보를 기억한 정도의 값으로 사용했다.

### (5) 사실 정보 획득

실험 자극의 내용을 토대로 10개의 OX 퀴즈를 출제하고 문제를 풀도록 했다. 총 10개의 퀴즈에 대해 한 문제당 각 1점을 부가했으며 총점을 사실 정보 획득 점수로 사용했다.

1) 샘플을 대상으로 한 코더 간 신뢰도는 세 명의 코더들이 진행했기 때문에 크리펜도르프 알파 계수를 계산했다. 핵심 내용 기억량은 21개 진술문 중 5개 진술문이며 해당되는 진술문과 크리펜도르프 알파계수는 다음과 같다; E1=.83, E2=.74, E3=.83, E19=.75, E20=.89. 핵심진술문을 제외한 진술문의 크리펜도르프 알파값은 다음과 같다; E1=.77, E2=.95, E3=.87, E4=.95, E5=1.00, E6=.84, E7=1.00, E8=1.00, E9=.86, E10=.85, E11=.86, E12=.91, E13=.83, E14=.87, E15=1.00, E16=.88, E17=.83, E18=.94, E19=.88, E20=.81, E21=.90. 이외에 실험참가자 별로 내용을 틀리게 기억한 진술문의 수와 추가 정보를 기억한 진술문의 수를 코딩했으며 크리펜도르프 알파값은 각각 .87, .89였다. ‘E’는 진술문(Event)을 의미.

## (6) 인과 관계 기억

인과관계는 실험참가자들이 실험 자극의 내용을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실험참가자들의 응답 내용을 토대로 값을 구했다. 연구자들은 먼저 실험 자극물에서 제시된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총 21개의 사실 진술문을 두 개 진술문로 이뤄진 하나의 쌍으로 구성했으며, 개별 쌍, 곧 두 진술문이 인과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다. 인과관계의 연관을 보이는 두 진술문의 경우 이를 인과관계를 가진 진술문 쌍으로 표시했다. 21개 진술문이 두 개의 진술문 쌍을 이루는 조합은 총 210개이며 210개 조합 각각에 대해 해당 조합이 인과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다.

이때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진술문A와 진술문B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진술문B는 진술문A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Trabasso & Sperry, 1985). 앞서 발생한 원인 사건은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의 역할을 하며 결과로 발생한 진술문은 앞선 사건에 따른 결과로, 만약 앞선 사건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는 사건으로 정의됐다.

본 연구의 실험자극물에서 인과관계의 사례를 제시하면, 'E6: 경찰과 노동자들이 몸싸움을 했다'와 'E15: 여성노동자가 머리를 다쳤다', 'E3: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고에 반발했다'와 'E20: 노동자들이 2차 시위를 벌였다' 등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10개의 조합 중에서 38개의 인과관계 쌍을 추출했다. 또한 38개의 인과관계 조합 중에서 일반적인 인과관계 이외의 실험 자극에 특정하게 제시되어 있는 인과관계를 분석했는데, 총 38개 중 8개가 실험 자극에서 언급된 사건 관련 특정 인과관계로 분석됐다. 본 연구에서 사건 관련 특정 인과관계의 예를 들면, 'E9: 'W사(회사)가 임금체계를 조정하려 했다'과 'E11: 임금 축소 소문이 났다'를 들 수 있다.

추출된 38개의 일반적 인과관계와 8개의 사건 관련 특정 인과관계를 응답자의 전체 진술문 기억과 비교했다. 전체 진술문 기억은 21개 진술문에 대해 각각의 진술문을 언급했는지를 표시한 것으로, 연구자들은 기억한 진술문 중에 인과관계로 추출된 두 개의 진술문을 동시에 기억한 경우, 해당 조합의 인과관계를 기억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령, 응답자가 21개의 진술문 중에서 1, 3, 4, 10, 11, 13 등 6개의 진술문을 기억했으며 38개의 인과관계 조합 중, (1, 3)과 (3, 4)의 조합이 인과 관계 조합이라고 하면 응답자의 진술문에서 해당 조합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응답자는 2개의 인과관계를 기억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사건 관련 특정 인과관계도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8개의 인과관계 조합을 언급하는지를 분석하여 해당 값을 구했다.

### (7) 이외 변인들

이외 변인들로 '미디어 활용능력', '사회 관심도', '정치 관심도', '사회 문제에 대한 일반적 지식수준' 등을 측정했다. 실험참가자들을 실험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하여 미디어 활용능력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외 변인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통제하도록 했지만 연구 분석 과정에서 가외변인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인을 측정했다.

미디어 활용능력은 스마트 기기의 이용/활용능력 및 정보공유/교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 기기에서 찾아낸 정보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원하는 정보를 잘 찾아내는 편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나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등의 총 13개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사회 관심도와 정치 관심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또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적 지식수준은 '현재 우리나라 부총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등의 6가지를 질문했다.

### 3) 실험 자극

본 연구의 실험 자극은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제작했다. 가상의 사건은 서울에 소재한 한 의류수출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 측을 상대로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이었다(〈그림 1〉 참조). 동일한 21개 진술문을 토대로 신문기사 유형과 카카오톡 유형의 2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신문기사 유형은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언론사 기자가 21개 진술문을 토대로 기사로 작성했다(〈그림 1〉 참고). 카카오톡 유형은 실제 이용자들의 대화 방식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만들기 위해 2회에 걸쳐 실제 대학생들에게 21개 진술문을 나눠주고 대화방을 만들어 해당 내용을 대화방에서 실제로 전달하도록 했다. 2번의 대화방 내용을 반영하며 카카오톡 뉴스 내용을 연구자들이 구성했다(〈그림 2〉 참고).

각 유형의 실험 자극은 실험참가자들이 실제 미디어 소비 환경과 유사하게 느껴지도록 신문기사 유형은 종이 신문기사로, 카카오톡 대화 유형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보도록 했다. 신문기사 유형의 신문기사는 인쇄해서 배포했으며 카카오톡 조건은 미리 카카오톡 대화방 포맷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읽게 했다(〈그림 2〉 참고). 참가자들이 실제로 접속한 웹사이트는 모바일웹사이트이지만 연구자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읽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대화방 포맷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했다. 해당 대화방에서 참가자들은 대화방의 다른 참가자들의 대화를 읽는 상황으로 몰입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 신문기사 실험 자극

### 이태원서 외국인 근로자 시위 벌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대규모 시위를 벌인 직후 부머기로 해고돼 논란이 일어난 데 이어 15일 해고에 반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2차 대규모 시위를 벌여 노사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한국의류수출가공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단내 의류가공업체인 W사는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캄보디아 국적의 A씨(27) 등 노조원 100여 명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 통지문을 보냈다.

W사 관계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계약 해지 통보는 사실상의 해고”라며 “노동조합이 벌인 시위 참가자들에게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W사 노동조합 소속 외국인 근로자 1000여 명은 수당 축소 움직임에 반발해 사측을 상대로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10일 W사 공장 앞에서 벌어진 노조 시위 도중 일부 근로자들이 공장 앞에 세워진 차량을 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난입해 집기를 파손시켰다.

경찰은 사측의 신고로 충동한 경찰이 근로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시위에 참여한 20세 여성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경찰관을 포함해 20여명의 크고 작은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달 월급에서 수당을 축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노조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W사 측은 “입금 체계를 조정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금 차질로 경제적 피해가 컸지만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W사 측은 원래 임금 조정 방안대로 피해와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시위로 W사 측이 입은 피해를 2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벌어진 대규모 2차 시위로 인해 이태원과 서울역 주변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 ○ ○ 기자

그림 2. 카카오톡 대화 유형 실험 자극 (예시)



#### 4) 실험 절차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유사 실험 연구방법을 실시했다. 실험이 실시되기 전 실험참가자들에게 스마트 기기 이용 가능 여부를 물어본 뒤, 스마트 기기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을 제외했다. 이후 신문기사 조건이나 카카오톡 조건 등, 두 조건 중의 하나로 무작위로 배정됐다. 실험참가자들은 먼저 미디어 활용 능력에 대한 설문에 응답했다. 이후 실험 자극물을 1분 동안 읽었다(신문기사 조건 vs 카카오톡 조건). 신문기사 조건은 종이 신문의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카카오톡 조건은 실제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꾸며놓은 URL에 스마트 기기로 접속하여 읽도록 했다. 실험 자극을 읽은 후 실험참가자들은 4분 동안 자신이 읽은 실험 자극의 중요한 내용과 기억나는 모든 내용을 작성했으며, 실험 자극 내용에 관한 OX 퀴즈를 풀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관심도와 정치관심도, 사회문제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했다. 실험 과정은 연구 담당자의 안내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룹으로 진행됐다. 전체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 5) 연구 참가자

서울 소재 대학의 미디어학부 전공 수업을 듣는 270명의 여대생이 참여했으며, 부실하게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총 269명의 응답 내용이 분석에 사용됐다. 연구 참가자들의 나이는 평균 21.3세( $SD = 2.04$ )이었다.

### 5. 연구결과

집단 간 분류는 무작위 배치를 통해, 신문 조건( $n = 137$ )과 카카오톡 조건( $n = 132$ )에 배정됐다. 집단 간 미디어 활용능력, 정치 및 사회 관심도, 지식 수준의 차이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미디어 활용능력( $t = .019, df = 257$ ), 정치 관심도( $t = .482, df = 264$ ), 사회 관심도( $t = -.025, df = 265.586$ ), 지식수준( $t = -.501, df = 266.675$ ) 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두 집단 간에는 해당 변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ps > .05$ ).

#### 1)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은 신문과 카카오톡의 조건에 따라 기억의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했다(<표 1> 참고).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위해 MANOVA를 이용했는데 전체 내용 기억과 핵심 내용 기억, 틀리게 기억한 진술문의 양과 추가 내용을 기억한 진술

표 1.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기사내용 기억의 차이

	신문		카카오톡		Wilks's $\lambda$	F	df <sub>1</sub> , df <sub>2</sub>	$\eta^2$
	M	SD	M	SD				
전체진술문 기억	6.10	2.14	5.52	2.05	.086	321.37**	4, 532	.71
핵심진술문 기억	1.50	.86	1.29	.84				
틀리게 기억한 진술문	.19	.43	.39	.70	.64	32.74**	4,532	.20
추가 정보를 기억한 진술문	.26	.47	.14	.37				
사실정보 획득	6.78	1.79	6.23	1.69		t 2.61**	df 267	

주. 신문 n = 137; 카카오톡 n = 132

\* p < .05, \*\* p < .01.

문의 양이 상호 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먼저, 전체진술문 기억량(<연구문제1-1>)과 핵심진술문 기억량(<연구문제1-2>)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신문기사를 읽은 집단과 카카오톡 대화를 읽은 집단 간의 기억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s  $\lambda = .086, F(4,532) = 321.372, p < .01, \eta^2 = .71$ ). 전체진술문 기억량에서, 신문기사를 읽은 집단(M = 6.10, SD = 2.14)이 카카오톡 대화를 읽은 집단(M = 5.52, SD = 2.0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핵심진술문 기억량에서도 신문기사를 읽은 집단(M = 1.50, SD = .86)이 카카오톡 대화를 읽은 집단(M = 1.29, SD = .84)보다 핵심진술문을 더 많이 기억한 것으로 관찰됐다.

다음으로 틀리게 기억한 진술문의 수(<연구문제1-3>)와 추가 내용을 기억한 진술문의 수(<연구문제1-4>)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카카오톡 대화를 읽은 집단(M = .39, SD = .70)이 신문기사를 읽은 집단(M = .19, SD = .43)보다 정보를 틀리게 기억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ilks's  $\lambda = .64, F(4,532) = 32.74, 2, p < .01, \eta^2 = .20$ ). 실험 자극에 포함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기억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연구문제1-4>), 신문기사를 읽은 집단(M = .26, SD = .47)이 카카오톡 대화를 읽은 집단(M = .14, SD = .37)보다 추가적인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카카오톡 대화를 읽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틀리게 기억하는 양이 더 많았고 신문기사를 읽은 집단이 추가 정보를 기억하는 양이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출제한 O, X 퀴즈에 대한 분석(<연구문제 1-5>)에서 신문기사를 읽은 집단(M = 6.78, SD = 1.79)이 카카오톡 대화를 읽은 집단(M = 6.23, SD =

1.69)보다 우세해 신문기사를 읽은 집단이 사실 정보의 획득에서 우월한 것으로 관찰됐다 ( $t = 2.61, df = 216.78, p < .01$ ).

## 2)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

<연구문제 2>는 인과관계에 대한 기억을 분석했다. 실험참가자들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 인과관계와 사건 관련 특정 인과관계의 2가지 측면을 분석했다. 일반적 인과관계 기억과 사건 특정 인과관계는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집단비교는 MANOVA를 이용했다.

먼저, 일반적 인과관계 기억을 관찰한 결과, 카카오톡 대화를 읽은 집단이 신문기사를 읽은 집단보다 일반적 인과관계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s  $\lambda = .382, F(4,532) = 82.29, p < .01, \eta^2 = .38$ ). 총 38개의 인과관계 중 신문기사를 읽은 집단은 평균 3.22개의 인과관계를 기억한 반면, 카카오톡 대화를 읽은 집단은 평균 3.97개의 인과관계를 기억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특정 인과관계 8개에 대한 기억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신문을 읽은 집단이 카카오톡 대화를 읽은 집단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신문조건,  $M = 1.34, SD = 1.59$ ; 카카오톡조건,  $M = .80, SD = 1.05$ ). 즉, 일반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를 읽은 집단이 더 잘 기억하고 있으나 해당 뉴스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기억할 수 있는 사건 관련 특정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신문기사를 읽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에서 관찰되듯이 거의 모든 분석 항목에서 신문기사 방식이 카카오톡 방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기사 형식으로 뉴스를 접할 때 뉴스의 전체 진술문과 핵심 진술문을 더 많이 기억하며 내용을 틀리게 기억하는 정도는 낮고 추가 관련 정보를 기억하는 정도는 더 높았다. 사실 정보 획득도 신문기사

표 2.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인과관계 기억의 차이

	신문		카카오톡		Wilks's $\lambda$	F	df <sub>1</sub> , df <sub>2</sub>	$\eta^2$
	M	SD	M	SD				
일반적 인과관계	3.22	2.89	3.97	3.39	.382	82.29	4,532	.38
사건 특정 인과관계	1.34	1.59	.80	1.05				

주. 신문  $n = 137$ ; 카카오톡  $n = 132$

\*  $p < .05$ . \*\*  $p < .01$ .

표 3. 연구결과 요약

분석 지표	분석 결과
전체 내용 기억	신문 > 카카오톡
핵심 내용 기억	신문 > 카카오톡
틀리게 기억한 정도	신문 < 카카오톡
추가 정보를 기억한 정도	신문 > 카카오톡
사실 정보 획득	신문 > 카카오톡
일반적 인과관계 기억	신문 < 카카오톡
사건 특정 인과관계 기억	신문 > 카카오톡

조건에서 더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기억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카카오톡 조건이 유의미하게 더 많았으며 사건 관련 특정 인과관계는 신문기사 조건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6. 결론 및 함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 카카오톡의 대화 형식을 토대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해 조건을 설정하여 이용자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뉴스 내용의 이해와 인과관계 파악이라는 두 가지 분석지표를 사용해 소셜미디어 뉴스 정보 전달 방식에서의 뉴스 이해의 특성을 관찰했다.

연구 결과, 뉴스 이해의 측면에서 신문기사 형식이 우세한 것으로 관찰됐다. 뉴스의 전체진술문과 핵심진술문의 기억에서 신문기사 형식이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성과 내용을 잘못 기억하는 정도에서도 더 나은 것으로 관찰됐다. 뉴스를 읽은 이후 해당 내용으로부터 정확한 지식을 획득했는지를 측정한 퀴즈에서도 신문기사 형방식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는 신문기사의 정보 전달 방식이 뉴스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풍부하게 뉴스를 이해하는 방식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문기사 방식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정보 전달 방식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기사 조건이 카카오톡 조건보다 우월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이용자들이 신문기사의 정보 전달 방식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앞서 역피라드형의 기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관찰된 것처럼 제한된 인지자원 이론에 따르면 익숙한 글쓰기 장르의 기사를 읽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험참가자들은 정보처리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의 조직적인 구성 역시 정보처리를 수월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문기사는 역피라미드 방식의 기사작성 규칙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내용을 조직화해서 전달했다. 뉴스 이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역피라미드형은 효율적으로 정보처리를 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신문기의 정보 전달 방식이 카카오톡 방식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분석 결과, 카카오톡 조건에서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기억하는 정도는 더 뛰어나지만 사건에 특정한 인과관계를 기억하는 데에는 신문기사 조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인지자원 이론과 서사구조 이론은 인과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적 모델의 주장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심적 모델에 따르면 두 조건 모두 인과관계라는 기준으로 정보를 통합해서 이해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기준을 사용했으며 신문기사 조건은 사건 특정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뉴스 정보를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조건에서 왜 사건 특정 인과관계에 의한 정보 통합이 미비했는지에 관해서, 다분히 탐색적인 추론이지만 연구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정보전달 방식, 곧 대화형식의 이야기체 전달방식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는 알고 있는 사람들 간에 상호 간 이야기하듯 뉴스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이때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은 의미를 형성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곧 이야기를 전달할 때 말하는 사람은 '무엇이 무엇을 왜 했다'는 기본적인 인과관계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며 이때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경우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관찰됐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진술문A: 시위가 발생했다'와 '진술문B: 차가 많이 막혔다'는 두 진술문을 전달할 때, '근데 겁나 차 많은 거!!', '차가 왜 많은 데?', '시위하고 있었나봐'와 같은 인과관계에 기반한 이야기 전개를 보였다.

대화체의 이야기 전달방식으로 인해 소셜미디어에서는 뉴스전달자와 수용자가 상호 대화를 통해 뉴스를 완성해가게 되며, 이때 뉴스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에 기반을 두고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셜미디어의 뉴스는 이미 알고 있는 인과관계를 통해 전달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처럼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기억 정도는 신문기사 조건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다른 방향의 분석 결과도 예상 가능하다. 대화체의 이야기 전달 방식은 대화자들의 관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정보처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는 ‘차가 많이 막힌다’는 개인적인 관여 수준에서 정보를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점을 반영한다. 관여 정도가 높아지면서 인과관계 등의 뉴스 정보 이해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며 이때 분석결과는 카카오톡 조건에서 인과관계의 기억 정도가 더 높아야 할 것이다.

신문기사의 정보 전달 방식이 새로운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문기사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는 정보처리 과정이 신문기사 읽기 조건에서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는, 신문기사 조건에서는 한 눈에 기사를 훑어보고 내용을 파악하기 유리한 물리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카카오톡의 실험 조건에서는 작은 스크린으로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기사를 읽어야 한다는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카카오톡 조건에서는 뉴스를 이해하는 것 이외에도 스크린을 움직여야 하는 등,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조건 여러 명의 대화자들이 등장하여 뉴스전달자가 한 명인 신문기사 조건과는 구별된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것도 카카오톡 조건에서 발생하는 추가 작업이다. 이에 따라 한 명이 뉴스를 전달하는 신문기사의 정보 전달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톡 조건에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새로운 인과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인지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신문기사 방식이 뉴스 이해를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더 나은 방식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신문기사 방식은 정보처리 방식이 이미 학습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카카오톡 조건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셜미디어의 특정한 뉴스 정보전달 방식을 일방적으로 열세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해의 본질적 과정을 밝혀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측면에서 실천적인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곧 소셜미디어 환경의 뉴스 이해가 상호 간의 이야기 방식에 근거한 커뮤니케이션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뉴스가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전략과 실천방법이 고민되어야 한다. 기존 언론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전달할

때 이 점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뉴스 이용의 상황을 실험 조건으로 구성했는데, 이에 따른 연구의 한계도 있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의 일반적인 양식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생들이 대화방에서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실험자극으로 활용했지만 여전히 실험 자극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는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정황을 실험 자극에서 모두 반영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실험자극은 대화적 속성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으며 이를 위해 실제 이용자들이 구성한 이야기를 사용해서 보완하고자 했지만 실제 카카오톡 대화의 뉴스 전달 과정을 재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탐색적 연구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정보 습득이 궁극적으로 시민 개개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관해 질문하고 신문 방송 등 전통 미디어(legacy media)와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뉴스 정보의 접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진단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또 지적해야 할 점은 본 연구에서는 뉴스 정보의 이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소비의 다른 주요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의 추천이나 ‘좋아요’와 같은 선호도 지표 등이 뉴스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뉴스의 속성(주제, 자극성 등)이나 개인적 태도(이슈에 관한 관여도, 소셜미디어에 대한 태도 등)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상대방과의 친밀감 정도, 대화방의 참여 인원 등도 차이를 만드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해당 요인에 관한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곽민영 (2011). 기사 스타일이 독자의 흥미, 신뢰도, 기억에 미치는 영향: 내러티브와 역피라미드 스타일 비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김경모 (2012).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언론정보연구>, 49권 1호, 7-37.
- 박선희 (2012). SNS 뉴스 소통: 다중성과 구술성. <언론정보연구>, 49권 1호, 37-73.
- 정희경·김사승 (2007).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의 뉴스생산양식 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124-152.
- 최민재·양승찬 (2009). <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 한국언론진흥재단.
- 최민재·양승찬·이강형 (2013).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2015 언론수용자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Baumgartner, J. C., & Morris, J. S. (2009). My Face tube politics: Social networking web sites and political engagement of young adult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8, 24-44.
- Bryant, J., Thompson, S. J., & Finklea, B. W. (2013). Fundamentals of Media Effects. 배현석 역(2016); <미디어 효과의 기초: 이론과 연구>. 한울아카데미.
- Bright, J. (2016). The social news gap: How news reading and news sharing diverge, *Journal of Communication*, 66(3), 343-365.
- Cappella, J. N., Kim, H. S., & Albarracin, D. (2015). Selection and transmission processes for information in the emerging media environment: Psychological motives and message characteristics. *Media psychology*, 18(3), 396-424.
- Collins, W. A. (1983). Cognitive processing in television viewing. In E. Wartella & D. C. Whitney (Vol. 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pp. 195-209). Beverly Hills, CA: Sage.
- van Dijk, T. A.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an Dijk, T. A.,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ew York: Academic Press.
- van den Broek, P., & Gustafson, M. (1990). Comprehension and memory for texts: Three generations of reading research. In S. R. Goldman, A. C. Graesser, & P. van den Broek (Eds.), *Narrative comprehension, causality, and coherence* (pp. 15-3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van den Broek, P., Risden, K., Fletcher, C., & Thurlow, R. (1996). A "landscape" view of reading: Fluctuating patterns of activ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stable memory representation. In B. Britton & A. Graesser (Eds.), *Models of understanding text* (pp. 165-18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Eveland, W. P. Jr., Morey, A. C., & Hutchens, M. J. (2011). Beyo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the study of informal political conversation from a communication perspective. *Journal of Communication*, 61, 1082-1103.
- Graber, D. (1988). *Processing the News: How People Tame the Information Tide* (2nd ed.). New York: Longman.
- Gunter, B. (1987). *Poor recep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lynn, C. J., Huges, M. E., & Hoffman, L. H. (2012). All news that's fit to post: A profile of news use on social network si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1), 113–119.
- Hermida, A. (2010a). From TV to Twitter: How Ambient News Became Ambient Journalism. *A Journal of Media and Culture*, 13(2).
- Hermida, A. (2010b). Twittering the news. *Journalism Practice*, 4(3), 297–308.
- Kintsch, W. (1998). *Comprehens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intsch, W., & van Dijk, T. A. (1978). Toward a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85(5), 363–394.
- Knobloch, S., Patzig, G., Mende, A., & Hastall, M. (2004). Affective news: Effects of discourse structure in narratives on suspense, curiosity, and enjoyment while reading news and novels. *Communication Research*, 31(3), 259–287
- Knobloch-Westerwick, S., Sharma, N., Hansen, D. L., & Alter, S. (2005). Impact of popularity indications on readers selective exposure to online news. *Journal of Broadcast and Electronic Media*, 49(3), 296–313.
- Lang, A. (1989). Effects of chronological presentation of information on processing and memory for broadcast new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3(4), 441–452.
- Lang, A. (2000). The limited capacity model of mediated message process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0(1), 46–70.
- Lee, M., Roskos, B., & Ewoldsen, D. R. (2013). The impact of subtitles on comprehension of narrative film. *Media Psychology*, 16(4), 412–440
- Lee, M., Roskos-Ewoldsen, B., & Roskos-Ewoldsen, D. R. (2008). Applying the landscape model to comprehending discourse from TV news stories. *Discourse Processes*, 45(6), 519–544.
- Lee C. S., & Ma, L. (2012). News sharing in social media: The effect of gratifications and prior experie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2), 331–339.
- Ma, L., Lee, C. S., & Goh, D. H-L. (2014). Understanding news sharing in social media. *Online Information Review*, 38(5), 598–615.
- Magliano, J. P., Dijkstra, K., & Zwaan, R. A. (1996). Generating predictive inferences while viewing a movie. *Discourse Processes*, 22, 199–224.
- Park, N., Kee, K. F., & Valenzuela, S. (2009). Being immersed in social networking environment: Facebook groups, uses and gratifications, and social outcomes. *Cyberpsychology & Behavior*, 12, 729–733.
- Pew Research Center (2013). *Future of Mobile News*. Available at <http://www.journalism.org/2012/10/01/future-mobile-news/>.
- Pöttker, H. (2003). News and its communicative quality: the inverted pyramid – when and why did it appear? *Journalism Studies*, 4(4), 501–511.
- Robinson, J. P. & Davis, D. K. (1986). Comprehension of a single evening's news (pp.107–132). In J. P. Robin and M. R. Levy (Eds.), *The learning from television news*. Sage: Beverly Hills, CA.
- Shim, H. (2014). Narrative journalism in the contemporary newsroom: The rise of new paradigm in news format? *Narrative Inquiry*, 24(1), 77–95.
- Singer, J. (2014). User-Generated Visibility: Secondary gatekeeping in a shared media space. *New Media and Society*, 16(1), pp. 55–73.
- Sternadori, M. (2008). *Cognitive processing of news as a function of structure: A comparison between inverted pyramid and chronology*.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Trabasso, T., & Sperry, L. L. (1985). Causal relatedness and importance of story event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4, 595-611.
- Weeks, B. E., & Holbert, R. L. (2013). Predicting Dissemination of News Content in Social Media: A Focus on Reception, Friending, and Partisanship.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0(2), 212-232.
- Wise, K., Bolls, P., Myers, J., & Sternadori, M. (2009). When words collide online: How writing style and video intensity affect cognitive processing of online new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3(4), 532-546.
- Yaros, R. A. (2006). Is it the medium or the message? Structuring complex news to enhance engagement and situational understanding by nonexperts. *Communication Research*, 33, 4, 285-309.
- Zwaan, R. A., Langston, M. C., & Graesser, A. C. (1995). The construction of situation models in narrative comprehension: An event-indexing model. *Psychological Science*, 6(5), 292-297.
- Zwaan, R. A., & Magliano, J. P., & Graesser, A. C. (1995). Dimensions of situation model construction in narrative comprehens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1(2), 386-397.
- Zwaan, R. A., & Radvansky, G. A. (1998). Situation models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123(2), 162-185.
- Zwaan, R. A., Radvansky, G., Hilliard, A. E., & Curiel, J. M. (2009). Constructing multidimensional situation models during reading.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2(3), 199-220.

투고일자: 2016. 11. 30. 게재확정일자: 2017. 1. 23. 최종수정일자: 2017. 1. 26.

## 부록

### 〈진술문 리스트〉

- \*E1.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 \*E2. 노동자들이 1차 시위를 벌였다.
- \*E3. 노동자들이 2차 시위를 벌였다.
- E4. 교통이 마비되었다.
- E5. 노동자들이 공장/차량을 부수었다.
- E6. 경찰과 노동자들이 몸싸움을 하였다.
- E7. 노동자들이 사무실에 쳐들어갔다.
- E8. 노동자들이 파손시켰다.
- E9. 임금 축소 소문이 났다.
- E10. W사/회사가 (2억) 손해 봤다.
- E11. W사/회사가 임금체계를 조정하려 하였다.
- E12.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였다.
- E13. 여성노동자가 죽었다.
- E14. 여성노동자가 머리를 다쳤다.
- E15. 여성 노동자가 병원에 갔다.
- E16. 경찰과 노동자들이 (약 20명 정도) 다쳤다.
- E17. W사/회사는 임금을 계속 올려줄 예정이다.
- E18. W사/회사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 \*E19. W사/회사는 시위 참여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해고통지문을 보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렸다.
- \*E20.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상 해고라고 이해하고/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보고) 해고에 반발하였다.
- E21. W사/회사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 표시는 핵심 사실 진술문

# Comprehension of a News Story on SNS in Comparison to the Traditional Newspaper

## **Mina Lee**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and Medi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eungchan Yang**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and Medi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HeeJung Seo**

Researcher, EBS Research center

This study investigated news comprehension via the social media by comparing the reading of a news story on the news paper. A news story on the social media was suggested to present information in a conversational form, which differs from a traditional reporting style. To compare the different forms of news information presentation, two conditions were created: in a control condition, a news story was written in a traditional reporting form.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the same news story was constructed in a conversational form. Participants were assigned randomly in one of two conditions. They read the news story and afterwards, they were asked to recall firstly, the core idea of the news story, secondly the whole news story, and finally to answer to the 10 questions that assessed how well they learned from the news story. Participants' responses were content-analyzed and produced six variables, the extent to recall the core idea, the extent to recall the whole story, the extent to recall wrong information, the extent to recall additional information, the extent to recall causally related contents in general, and finally the extent to recall causally related contents in story-specific. Analyses on the six variables revealed that the group in the news paper condition recalled more core idea, the whole story, and additional information than the group in the social media. But the news paper condition recalled less of wrong information than the group in the social media condition. Additionally, the news paper condition learned more than the group in the social media. Regarding the recall of causally related contents, the general causal relationships were recalled more in the group in the social media condition but the story specific causal relationships were recalled more in the group in the news paper condition. The findings seemingly indicated that a traditional news reporting contributes to news story comprehension more than

the conversational form. Authors however added discussions and advised that the findings needed to be read under caution.

**KEYWORDS** Ambient Journalism, Social Media, News Comprehension, Recall, Causal Relationship